

대중문화와 “진동의 신학”

〈서초교회 잔혹사〉와 〈아따, 참말이어〉 사이에서

◎ 추태화 (교육분과장,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I. 트로트 〈아따, 참말이어〉 논란

한 케이블방송이 주최한 트로트경연대회에 나온 노래 때문에 교계가 시끌벅적했다. 지난 3월이던가. 당시 미디어에는 댓글이 와글와글... 한쪽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이 빗발쳤다. 가수는 의외로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감리교단에서 공부한 구자역 목사란 분이 바로 그였다. 그는 운동복 차림을 하고 등에는 ‘할렐루야’가 새겨져 있었는데, 부른 노래는 〈아따, 참말이어〉. 가사는 복음서를 압축해 놓은 거였다. 자막이 소개하기를 “이 분이 바로 세계 최초 하나님의 뽕짝 가수”라 했다. 가수 구자역의 노래는 미디어를 타고 강산을 흘러흘러 수많은 청중의 귓가에 맴돌았고, 이를 두고 좌중이 요란했던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기독교와 대중문화 사이에 하나의 스펀지가 되기에 충분했다. “복음과 뽕짝, 과연 불온한 만남인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비판가의 입담처럼, 거룩한 복음을 저속한 음악에 담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성, 예수께서 처절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보혈을 저급한 질그릇에 담는다는 발상, 그 자체로 이미 신성모독 아닌가? 어떤 독설가의 입을 빌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세속의 입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만큼 모자라지 않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하나님의 지고하신 거룩하심을 저속한 대중문화로 포장하지 말 것은 물론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불손한 발상은 떠올리지도 말라는 훈계였다. 이런 생각은 대중문화는 저속하다는 전제를 안고 있으며, 니버의 분석처럼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살고 있으며, 제림을 고대하고 있다. 세상 문화는 종말의 종말로 내달리고 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보자면 이미 종말의 막바지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표가 등장하고, 성도에 대한 유혹이 극한 상황에 이른 지금 어떤 증표를 더 요구한단 말인가. 그런 가운데 대중문화의 폐단 또한 적지 않으나, 낮은 곳에 처한 대중문화를 들어 높은 체 하는 자리와 사람들을 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없지 않으니, 이 자리에서 한번 논하고 지나야 할 사명감마저 느낀다.

II. 하나님의 역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한다. 그 중 하나가 역설(paradox)이다. 역설은 스스로 모순되어 보이나 진실을 내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기이하다. 체험으로 이해하고 논리로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가령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산상수훈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라고 가르치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역설하신다. 십자가는 치욕의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역설 중 가장 극적인 역설은 어떤 것일까.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고뇌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으로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오실까. 더구나 죄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설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골 2:2) 되는 과정은 곧 역설의 수용에서 출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설로 계시되었다.

역설의 논리를 아주 잘 담아낸 찬양이 있다.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찬양을 들여다 본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 일꾼들이 쓰다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 부끄럽게 하시네 / 이토록 놀라운 주의 나라 온 땅에 / 이토록 아름다운 주의 나라 온 땅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세워가시기 위해 밝음과 어둠, 낮음과 높음, 부요와 가난, 연약함과 강함, 거룩과 세속, 선과 악, 명예와 치욕 등등... 하나님의 뜻대로 가히 역설적으로 운용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하여 “우리 눈에 기이하다.”(마 21:42)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역설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진동이다.

III. 진동의 신학

구원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신다. 때로는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음성으로(욥 15:11),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계시로(출 3:2), 때로는 천지를 진동하십시오(출 19:18) 그 섭리를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진동하심(Shaking of God)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요 그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역사를 진동하실까.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진동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을 보이시면 피조물인 천지는 진동할 수밖에 없다. 진동은 주님이 보이시는 영광 중 일부분이라 하겠다. 진동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또한 진동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심판을 결행하실 때 진동은 명확한 증거였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심으로 하늘이 물을 내리고, 땅이 갈라져 물을 쏟았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 후 하나님의 진동하심으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졌다. 진동하심이었다. 이스라엘이 패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진동하셨다. 바벨론이나 앗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침략을 거꾸로 진동하심으로 활용하신다. 역사의 진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다.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제사에 대하여 노하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신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사 1:1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영적 날씨를 분별하게 하는 잣대로 문화를 들 수 있겠다.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문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정욕을 만족케 하는데 분주한가. 종말 시대에 문화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될 것이며(롬 2:3-4), 이 진노는 필경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동반할 것이다.

IV. 쓰임받는 대중문화

그동안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독교계의 의견은 가혹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거룩과 세속의 결별을 외쳤던 교부 터툴리아누스와 같은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경우도 다르지 않다. “뽕짝으로 찬양을 부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을 다시 점검해 보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환상 중 부정한 것이 보자기에 싸여 내려왔고,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행 10:15)는 응답이 들렸다. 베드로는 곧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로 달려갔다. 그동안 대중문화의 폐단에 놀라 무조건 속되다 평하지는 않았는지, 혹 하나님께서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에 대중문화를 쓰시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 21:3) 주께서 천대받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천대받는 대중문화를 쓰시겠다 하신 것은 아닐까. 주께서 뽕짝을 쓰시겠다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복음은 뽕짝을 타고... 예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우셨지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냉엄하셨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행동하셨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부드러우셨지만, 스스로 고귀하다는 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이중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 첫째는 본인들이 저질렀던 원선 그 자체요, 두 번째는 그런 행동을 통해 이웃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가식이었다. 여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독교계의 일부 문제점을 잠깐 상기하고자 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기운실이 발표한 신뢰도 지수이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9.4%, 이는 한 종교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가치기준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이며, 타종교에 비해서도 낮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주님이 가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려는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상은 교계에 대해 ‘너나 잘 하세요’라는 시니컬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출간된 책 한 권이 이런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초교회 잔혹사>(육성호 저)이다. 이 소설은 인간의 조직으로 전략해버린 일부 대형 교회들이 바리새인의 성체처럼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알레고리 기법으로 읽자면 배꼽잡고 웃게 만드는 희화적 이야기이지만, 내심은 슬프고 우울하다.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선교 130년 청년기에 이런 질병에 걸리고 말았는가. 어떤 교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 친위대가 만들어지고, 복음과 사랑의 원리는 어디가고 경영 행정, 조직관리 기법이 판치게 되었는지...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말세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에 버젓이 파리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까지 하다. 그동안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려 주셨다. 인내에 인내를 보이시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다. 주님은 부요하다 자랑하는 교회에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 주님은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에 충분히 기다려 주셨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 주님은 그런 교회들이 내건 기독교 ‘고급문화’에 질린 것은 아닐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른바 고급문화, 다 쓸데없다. 내 이름을 빙자해 자행한 그 많은 악행에 나는 배부르다. 너희의 휘황찬란한 십자가, 엄청난 건축비의 교회당, 거기에 어울리는 유명브랜드 주일 의상과 향수... 너희 그 잘난 고급문화는 충분히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름진 고급문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서 천대받으나 순진하게 구원에 목말라 하는 저 문화를 택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 세상에서 대중문화라 손가락질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면 되니 문제될 것 없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성의 시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

어쩌면 하나님께서 문화를 진동하셔서 문화를 재편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담 참말이여>가 유익하고 저급한 문화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께서 쓰셨다고 하시는 데 우리가 인간적 판단으로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듯 교계가 자랑하는 고상한 고급문화를 이미 떠나신 것은 아닌지. 바벨탑을 해체하시듯 교회라는 우리 시대의 고층빌딩을 해체하시는 수순은 아닌지. 하나님의 진동은 교계에도 문화계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기존 문화를 해체하여 새로운 질서로 문화를 재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아닐까. 저급한 문화로 평가되는 뽕짝,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을 투입하려는 시도가 과연 낯설고 어질픈 ‘유치찬란’한 촌극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성구가 귀에 쟁쟁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마 21:1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¹⁾ 구자의 목사가 부른 ‘뽕짝 복음송’,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거친 돌이 될지 몰라도, 이방인을 위하여 서울을 바울로 부르신 이의 섭리 안에서는 바리새적 문화를 진동하시는 문화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계속 뽕짝 복음송에 탄지를 건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요 21:23). 내가 올 때까지 뽕짝 같은 대중문화를 들어 쓴다고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 만약 주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대중문화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1) <아담 참말이여>에 관한 신학 예세이는 류호준 교수의 글 “‘참말이여’ 유감” 참조.